

무용 전공자의 무용기록물 인식, 탐색 및 활용 행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ance Majors' Perceptions and Behaviors in Searching for and Using Dance Records

박정연(Jeong Yeon Park)¹, 김수정(Soojung Kim)²

E-mail: pak9717@naver.com, kimssoojung@jbnu.ac.kr



1 제1저자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2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

논문접수 2025.10.17
최초심사 2025.10.26
게재확정 2025.11.14

ORCID

Jeong Yeon Park
https://orcid.org/0009-0004-9681-2456

Soojung Kim
https://orcid.org/0000-0002-0490-3149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 전공자를 대상으로 무용기록물에 대한 인식과 탐색 및 활용 행태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성인 무용 전공자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4명과 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무용기록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인식 수준과 탐색 빈도에서 전공 및 직업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무용·발레 전공자 및 무용교육자 집단의 탐색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용 전공자들은 주로 유튜브와 SNS를 이용해 기록물을 탐색하였고, 반면 기관 홈페이지나 아카이브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다양한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보급, 검색 및 접근성 향상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무용기록물 인식 제고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기록물의 생산과 디지털화, 통합 검색 플랫폼 구축, 그리고 기술적·저작권적 제약의 해소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dance majors perceive, search for, and utilize dance record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36 adult dance majors, supplemen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4 participa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overall awareness of the term "dance records" was low, whereas the perceived necessity of such records was high.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levels of awareness and search frequency by major and occupations; in particular, Korean dance and ballet majors, as well as dance educators, demonstrated relatively higher search activity. Dance majors mainly searched for records through online platforms such as YouTube and social media, while the use of official institutional websites or dance archives remained low. In addition, respondents suggested the digitization and dissemination of various types of records, along with improvements in search functionality and accessibility, as key measures for enhanc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o raise awareness and promote the active use of dance records, the production and digitization of diverse record typ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earch platform, and the resolution of technological and copyright-related constraints.

Keywords: 무용기록물, 무용 전공자, 이용자 인식, 탐색 행태, 활용 행태
dance records, dance major, user awareness, search behavior, utilization behavio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무용은 신체를 매개로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하는 예술로, 신체의 움직임 자체가 창작의 수단이자 작품으로 간주된다. 또한 무용은 공연 당시 감상하지 못하면 다시 볼 수 없는 일회성, 순간성, 휘발성의 특성을 지닌다(주선영, 2015). 이는 공연예술의 한 갈래로서 무용이 지닌 본질적인 속성이며, 그 결과 무용은 문학이나 미술 등 유형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예술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 한편, 무용을 기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무용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예술일 뿐만 아니라 신체 움직임은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축을 따라 전개되는 4차원적 현상인데 이를 영상, 사진, 무보(舞譜) 등 2차원 매체의 기호로 환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용은 보존과 계승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무용기록물은 단순히 공연을 촬영해 남긴 자료가 아니라 무용 예술의 전 과정을 담아내고 그 맥락을 보존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록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주석(2014)은 “무용기록물이란 공연 당일뿐 아니라 공연 전후의 시간에 걸쳐 무용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기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무용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관련 행정 자료, 그리고 개인 및 조직에 연관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공연의 기억을 확장하고 집합적 예술 행위의 맥락을 보존하려는 목적을 가진 기록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무용기록물은 공연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창작 과정과 행정·조직적 배경까지 포괄하는 예술 기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무용기록물은 단순한 보존의 기능을 넘어 예술적, 교육적, 연구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연 실황 영상과 사진은 무용수의 동작과 표현을 분석하거나 향후 공연을 재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공연 프로그램 북이나 포스터는 창작자의 의도와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 또한, 학술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나 지역의 무용사적 흐름을 탐구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활용가능성에 주목하여 국립극장, 아르코 예술기록원, 국립국악원 등 여러 예술 관련 기관에서는 공연 영상, 사진, 포스터, 팸플릿, 프로그램북, 대본 등 다양한 기록을 수집, 관리,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확산에 힘입어 고해상도 공연 영상이나 온라인 전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점차 무용의 재현·교육·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무용기록물 관리 및 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무용기록물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무용기록물의 가치 규명, 수집과 관리 방안, 무용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 실제 이용자들이 무용기록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용기록물의 궁극적인 활용 주체는 무용을 창작하고 연구하는 전공자들이며, 이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기록물의 실제적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무용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무용기록물에 대한 인식과 탐색 및 활용 행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향후 무용기록물의 수집·관리 체계와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무용기록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가치 규명 측면과 수집·관리·활용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먼저 무용기

기록물의 가치와 개념을 규명한 연구로 신상미(2001), 이소연과 박주석(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신상미(2001)는 무용기록의 가치와 분석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무용 기록이 단순한 자료 보존의 수단을 넘어 무용 현상의 분석·해석·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기능한다고 보았으며, 교육, 민족무용학 및 인류학 연구, 안무 스타일 분석, 요법 및 심리학적 연구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통해 무용기록의 학문적, 창작적, 치료적 의의를 부각하였다. 이소연과 박주석(2016)은 무용기록물인 『홍재전서』 제62권 잡저9의 「성단향의」와 『사직서위례』를 바탕으로 재현된 <영성제>와 <사직대제> 공연 사례를 분석하여, 무용기록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재현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다음으로 무용기록물의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임장혁(2008)은 무용 분야 중요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기록의 법적 근거, 기록 방법과 내용 등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전승 과정에서 기록물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기록의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 기록화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련 기록물이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사적 소장 자료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표준화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유미희(2008)는 아르고 예술기록원, 국립극장 등의 주요 예술기관의 무용자료 현황을 조사하여 각 기관의 교육적 매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선영(2015)은 기록관리학 방법론을 적용한 무용기록물 수집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무용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 체계와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무용아카이브 기록물의 평가 기준을 내용영역, 정보영역, 품질영역, 활용영역, 배경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획형·참여형·일괄형의 세 가지 수집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무용기록물의 수집과 평가를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오정은(2023)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고 예술기록원, 국립국악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집한 83명의 무용 구술사 채록문을 분석하여 전거레코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통해 ‘무용가, 무용단체, 작품명, 장소’ 등의 전거 항목을 도출함으로써 무용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공연예술기록 및 공연예술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도 기록관리학과 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호신(2014; 2018), 최윤영(2023)은 공연의 일회성과 현장성으로 인해 완전한 재현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공연예술기록의 존재론적 한계와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공연예술 기록의 조직 방법(이호신, 2016), 저작권과 초상권 등 법적 쟁점(이호신, 2013a; 2013b), 민간극단의 기록관리 방안(양세라, 2012), 공연예술 아카이브 활성화(허진, 2022) 등 실무적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기록정보콘텐츠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김도연, 2020; 오경한, 김진, 2023) 공연예술 아카이브 플랫폼에 디지털 큐레이션 전략을 적용한 웹서비스 모델을 제안한 연구(주선영, 2024)도 등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무용기록물 관련 연구는 주로 무용기록물이 지닌 가치를 규명하거나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방안 등 제도적·실무적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가 무용기록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공연예술기록 전반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무용기록물의 실질적 활용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방법

2.1 설문조사 절차

본 연구는 성인 무용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하였다. 여기서 ‘무용 전공자’는 대학에서 무용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현재 무용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용 전공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설문조사는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2일간 Google Forms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지역 대학의 무용학과 및 무용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무용학과 동문회 네트워크, SNS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등을 통해 설문 링크를 배포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에 앞서 대학생, 무용교육자, 전문무용수 각 1명씩 총 3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이해도, 소요 시간을 점검한 뒤 표현의 명확성과 적절성을 보완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록 인식 및 아카이브 이용 관련 선행연구인 김두리와 김수정(2014), 박유진과 정영미(2019), 이정은 외(2017), 장연희와 윤은하(2024)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무용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무용기록물 인식, 탐색 행태, 활용 행태, 인식 개선 및 활용 촉진 방안의 총 5개 영역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 문항 구성

설문 영역	문항 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대, 무용 경력, 전공 분야, 직업, 활동 지역	6
무용기록물 인식	‘무용기록물’ 용어 인식도, 무용기록물로 인식하는 기록물 유형, 활용 목적별 무용기록물의 필요성	3
무용기록물 탐색 행태	무용기록물 탐색 빈도, 탐색 경로, 정보원, 탐색한 기록물 유형, 어려움 경험 여부, 탐색이 어려운 이유, 탐색하지 않은 이유	7
무용기록물 활용 행태	활용 빈도, 활용 목적, 가장 많이 활용한 기록물 유형, 무용 활동 도움 정도, 활용이 어려운 이유	5
인식 개선 및 활용 촉진 방안	무용기록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활용 촉진 방안	1
합계		22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 항목에 따라 빈도분석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무용 경력, 전공분야, 직업 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다. 집단 간 인식 및 탐색·활용 행태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잔차 분석(residual analysis)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어떤 집단 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2.2 면담 절차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4명의 무용 전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공분야 및 직업별로 무용기록물에 대한 인식과 탐색·활용 행태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공 분야와 직업을 가진 대상자들로 모집하였다. 면담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다. 면담 문항은 설문조사와 유사하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무용기록물 탐색 경험, 활용 경험,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일반적인 경험이나 의견을 묻는 대신, 무용기록물을 탐색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성공·실패 사례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서면 응답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수집된 응답은 공통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간 상호 검토를 통해 범주의 타당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질문별로 응답자들의 진술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의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참여자 정보

구분	전공 분야	무용 경력	직업
A	한국무용	12년	대학생
B	현대무용	12년	현대무용가
C	발레	20년	무용 강사
D	실용무용	10년	브레이킹 댄서

3. 설문조사 결과

3.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는 총 136명이 참여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104명(76.5%), 남성이 32명(23.5%)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가 92명(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은 응답자 수가 적어서 향후 분석에서는 ‘40대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무용 경력은 5-10년이 44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와 ‘16-20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분석에서는 ‘10년 이하’와 ‘16년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공분야는 한국무용 55명(40.4%), 현대무용 29명(21.3%), 발레 27명(19.9%), 실용무용 25명(18.4%)의 분포를 보였으며, 활동 지역은 비수도권이 77명(56.6%), 수도권이 59명(43.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은 무용교육자가 46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생 43명(31.6%), 전문무용수 33명(24.3%), 기타 14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사무직, 필라테스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혼재되어 있고 표본 수가 적어, 직업별 교차분석에서는 ‘기타’를 제외한 122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36)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32	23.5
	여성	104	76.5
연령대	20대	92	67.6
	30대	30	22.1
	40대	11	8.1
	50대	2	1.5
	60대 이상	1	0.7
	무용 경력	5년 이하	15
5-10년		44	32.4
11-15년		40	29.4
16-20년		16	11.8
20년 이상		21	15.4

전공 분야	한국무용	55	40.4
	현대무용	29	21.3
	발레	27	19.9
	실용무용	25	18.4
	기타	0	0.0
직업	대학(원)생	43	31.6
	전문무용수	33	24.3
	무용교육자	46	33.8
	기타	14	10.3
활동 지역	수도권	59	43.4
	비수도권	77	56.6

전공과 직업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표 4> 참조).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전공자는 대학(원)생, 전문무용수, 무용교육자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발레 전공자는 무용교육자가 73.1%로 집중되어 있었고, 실용무용 전공자는 대학(원)생이 5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4> 전공과 직업의 교차 분석(N=136)

교차분석 대상	대학(원)생		전문무용수		무용교육자		합계		$\chi^2(p)$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한국무용	16	32.0	17	34.0	17	34.0	50	100	23.178 (<0.001)***
현대무용	8	36.4	8	36.4	6	27.3	22	100	
발레	5	19.2	2	7.7	19	73.1	26	100	
실용무용	14	58.3	6	25.0	5	16.7	24	100	

p* < 0.05, p** < 0.01, p*** < 0.001

3.2 무용기록물 인식도

‘무용기록물’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무용기록물’이라는 용어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 58명(42.6%),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61명(44.9%), ‘알고 있다’ 17명(12.5%)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무용기록물이라는 용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무용기록물’ 용어 인식도(N=136)

구분	빈도	백분율(%)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61	44.9
처음 들어본다	58	42.6
알고 있다	17	12.5
합계	136	100.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무용기록물’ 용어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무용 경력, 전공, 직업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6> 경력, 전공, 직업별 ‘무용기록물’ 용어 인식도 교차 분석

교차분석대상		처음 들어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알고 있다		합계		$\chi^2(p)$
항목	세부항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무용 경력 (N=136)	10년 이하	32	54.2	24	40.7	3	5.1	59	100	13.457 (0.009)**
	11-15년	18	45.0	17	42.5	5	12.5	40	100	
	16년 이상	8	21.6	20	54.1	9	24.3	37	100	
전공분야 (N=136)	한국무용	16	29.1	32	58.2	7	12.7	55	100	32.251 (<0.001)***
	현대무용	9	31.0	15	51.7	5	17.2	29	100	
	발레	10	37.0	12	44.4	5	18.5	27	100	
직업 (N=122)	실용무용	23	92.0	2	8.0	0	0.0	25	100	15.912 (0.003)**
	대학(원)생	27	62.8	15	34.9	1	2.3	43	100	
	전문무용수	10	30.3	16	48.5	7	21.2	33	100	
	무용교육자	13	28.3	26	56.5	7	15.2	46	100	

p* < 0.05, p** < 0.01, p*** < 0.001

무용 경력과 관련하여 추가로 실시한 잔차 분석 결과, 경력 10년 이하 집단은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경력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무용기록물 용어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무용 경력 16년 이상 집단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 무용기록물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p < .05). 11-15년 경력 집단은 두 집단의 중간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경력 기간이 길수록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기록물에 대한 이해가 무용 활동 경험의 누적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직업별로는 대학(원)생 집단이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무용수와 무용교육자 집단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이는 직업적 경험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교육자나 현업 무용수는 공연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무용기록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공 분야에서는 실용무용 전공자의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모든 전공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 < .05). 이에 비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전공자는 ‘알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실용무용 전공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세 전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실용무용 전공 집단 내에 대학(원)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용무용은 다른 전공에 비해 이론적·학문적 학습 비중이 낮고,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용기록물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무용 전공자들이 무용기록물로 인식하는 자료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복수 응답 방식으로 질문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공연 실황 영상·사진을 무용기록물로 인식한다고 선택한 응답자가 118명(86.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무 노트·무보(舞譜) 106명(77.9%), 무대·의상 등 기술 관련 자료 98명(72.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무용기록물을 특정 유형에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평론·신문기사 56명(41.2%), 공연 후기·감상 관련 기록 75명(55.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여 응답자들이 2차적 문서 중심의 기록물보다 무용의 움직임과 실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좀 더 무용기록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7> 무용기록물 유형 인식(복수 응답)(N=136)

구분	빈도	백분율(%)
공연 실황 영상·사진	118	86.8
안무 노트·무보(舞譜)	106	77.9
무대·의상·음향 등 기술 관련 자료	98	72.1
리허설·연습 자료	95	69.9
공연 프로그램 북·포스터	92	67.6
안무가·무용수 구술기록	91	66.9
공연 홍보 영상	83	61.0
공연기획서 등 행정자료	82	60.3
공연 후기·감상 관련 기록	75	55.1
평론·신문 기사	56	41.2
합계	896	-

무용기록물이 각 활용 목적에 따라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목적에서 평균 4.2점 이상을 보여 무용기록물의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무용기록물 활용 목적별 필요성 인식도(N=136)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연구 및 창작	4.26	.647
수업 및 교육	4.39	.611
무용 공연 재현	4.45	.569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활용 목적별 필요성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 분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이에 따라 전공분야별로 각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추가적으로 수행한 잔차 분석 결과에서 모든 3개 목적에 대해 한국무용 전공자의 ‘매우 필요하다’ 응답이 다른 전공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실용무용 전공자의 ‘매우 필요하다’ 응답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다른 전공에 비해 무용기록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현대무용과 발레 전공자는 중간 수준의 인식을 보여,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별 교육체제와 예술적 지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한국무용은 전통의 재현과 계승을 중시하는 교육체계 속에서 기록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것과는 달리 실용무용은 대중문화 중심의 창작 활동이 강해 기존 기록물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전공분야별 무용기록물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교차 분석(N=136)

교차분석대상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chi^2(p)$
항목	세부항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연구 및 창작	한국무용	1	1.8	22	40.0	32	58.2	55	100	24.338 (<0.001)***
	현대무용	4	13.8	16	55.2	9	31.0	29	100	
	발레	4	14.8	15	55.6	8	29.6	27	100	
	실용무용	6	24.0	17	68.0	2	8.0	25	100	
수업 및 교육	한국무용	2	3.6	18	32.7	35	63.6	55	100	22.607 (<0.001)***
	현대무용	3	10.3	17	58.6	9	31.0	29	100	
	발레	1	3.7	11	40.7	15	55.6	27	100	
	실용무용	3	12.0	19	76.0	3	12.0	25	100	

무용 공연 재현	한국무용	2	3.6	16	29.1	37	67.3	55	100	29.955 (<0.001)***
	현대무용	0	0.0	14	48.3	15	51.7	29	100	
	발레	0	0.0	16	59.3	11	40.7	27	100	
	실용무용	3	12.0	19	76.0	3	12.0	25	100	

p* <0.05 , p** <0.01 , p*** <0.001

3.3 탐색 행태

최근 6개월간 무용기록물 탐색 빈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8명(72.1%)이 탐색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10>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개월간 1-2회 검색한 응답자가 35명(25.7%)으로 많았고, 주 1-2회 25명(18.4%), 월 2-3회 18명(13.2%)의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0> 무용기록물 탐색 빈도(N=136)

구분	빈도	백분율(%)
거의 매일	9	6.6
주 1-2회	25	18.4
월 2-3회	18	13.2
월 1회	11	8.1
6개월 1-2회	35	25.7
탐색하지 않았다	38	27.9
합계	136	100.0

또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탐색 빈도 차이를 알아보았다. 카이제곱 검정의 기대빈도 가정 충족을 위해 탐색 빈도를 '정기적 탐색'(거의 매일 + 주 1-2회), '월 단위 탐색'(월 2-3회 + 월 1회), '비정기적 탐색'(6개월 1-2회), '탐색하지 않음'의 4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무용 경력, 전공,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경력, 전공, 직업별 탐색 빈도 교차 분석

교차분석대상		정기적 탐색		월 단위 탐색		비정기적 탐색		탐색하지 않음		합계		$\chi^2(p)$
항목	세부항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무용 경력 (N=136)	10년 이하	11	18.6	7	11.9	19	32.2	22	37.3	59	100	20.711 (0.002)**
	11-15년	10	25.0	8	20.0	8	20.0	14	35.0	40	100	
	16년 이상	13	35.1	14	37.8	8	21.6	2	5.4	37	100	
전공 분야 (N=136)	한국무용	19	34.5	13	23.6	14	25.5	9	16.4	55	100	24.058 (0.004)**
	현대무용	6	20.7	5	17.2	7	24.1	11	37.9	29	100	
	발레	8	29.6	9	33.3	6	22.2	4	14.8	27	100	
	실용무용	1	4.0	2	8.0	8	32.0	14	56.0	25	100	
직업 (N=122)	대학(원)생	11	25.6	6	14.0	13	30.2	13	30.2	43	100	14.392 (0.026)*
	전문무용수	5	15.2	9	27.3	6	18.2	13	39.4	33	100	
	무용교육자	16	34.8	12	26.1	14	30.4	4	8.7	46	100	

p* <0.05 , p** <0.01 , p*** <0.001

잔차 분석 결과, 무용 경력 10년 이하 집단은 ‘탐색하지 않았다’ 응답 비율이 다른 경력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무용기록물에 대한 탐색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에 비해 무용 경력 16년 이상 집단은 ‘정기적 탐색’과 ‘월 단위 탐색’ 응답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기록물 탐색이 보다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p < .05$). 이는 경력이 누적되고 기록물의 필요성을 실무적으로 체감할수록 기록물에 대한 탐색 행위가 습관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공별로는 실용무용 전공자의 ‘탐색하지 않았다’의 응답 비율이 다른 전공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무용기록물에 대한 접근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한국무용과 발레 전공자는 ‘정기적 탐색’ 및 ‘월 단위 탐색’ 응답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p < .05$) 이들 전공에서는 무용기록물을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현대무용 전공자는 중간 수준의 탐색 빈도를 보여 다른 전공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실용무용 전공자들의 낮은 탐색 빈도는 앞서 언급한 낮은 필요성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결과로, 기록물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색 활동으로 이어지는 동기가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별로는 무용교육자 집단의 ‘정기적 탐색’ 응답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전문무용수 집단은 ‘탐색하지 않았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록물 탐색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생 집단은 ‘비정기적 탐색’ 응답이 가장 많아 필요시에만 기록물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p < .05$). 이러한 결과는 무용기록물 탐색 행태가 직업적 역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하며, 특히 교육 목적으로 무용기록물의 탐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6개월간 무용기록물을 탐색한 경험이 있는 98명을 대상으로 무용기록물 탐색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검색엔진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수가 67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SNS 54명(55.1%), 친구 및 동료 추천 29명(2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무용기록물 탐색 경로(복수 응답)(N=98)

구분	빈도	백분율(%)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등)	67	68.4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54	55.1
친구 및 동료 추천	29	29.6
합계	150	-

무용기록물을 획득한 주요 정보원은 유튜브(86.7%)로, 공연단체 홈페이지(36.7%), 무용 아카이브(28.6%)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13> 참조). 이는 응답자들이 공식 기관의 플랫폼보다 개방형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 무용기록물 정보원(복수 응답)(N=98)

구분	빈도	백분율(%)
유튜브	85	86.7
공연단체 홈페이지	36	36.7
무용 아카이브	28	28.6
학교 수업자료	20	20.4
커뮤니티형 플랫폼	19	19.4
합계	188	-

탐색된 무용기록물의 유형은 공연 실황 영상·사진(80.6%)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공연 프로그램 북·포스터(56.1%), 공연 홍보 영상(43.9%) 순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응답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탐색하고 있으나 특히 시각적 자료에 집중하여 공연의 재현성과 시각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14> 탐색한 무용기록물 유형(복수 응답)(N=98)

구분	빈도	백분율(%)
공연 실황 영상·사진	79	80.6
공연 프로그램 북·포스터	55	56.1
공연 홍보 영상	43	43.9
무대·의상·음향 등 기술 관련 자료	42	42.9
안무가·무용수 구술기록	30	30.6
리허설·연습 자료	28	28.6
안무 노트·무보(舞譜)	25	25.5
공연 후기·감상 관련 기록	25	25.5
평론·신문 기사	21	21.4
공연기획서 등 행정자료	19	19.4
합계	367	-

무용기록물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는 탐색 경험이 있는 98명 중 31명(31.6%)으로 나타났다. <표 15>에서 이들이 경험한 어려움의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콘텐츠가 부족하거나 원하는 자료가 없어서’(87.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록물이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74.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검색 기능이나 열람 방법이 어려워’(35.5%), ‘접근 권한이나 이용 제한’(29.0%)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기록물의 탐색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자료의 부족과 분산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의 이용상 불편과 접근 제한 역시 추가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표 15> 탐색 어려움의 원인(복수 응답)(N=31)

구분	빈도	백분율(%)
콘텐츠가 부족하거나 원하는 자료가 없어서	27	87.1
기록물이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	23	74.2
검색 기능이나 열람 방법이 어려워	11	35.5
접근 권한이나 이용 제한(회원가입, 기관 제한 등) 때문에 어려워	9	29.0
무용기록물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서	3	9.7
합계	73	-

지난 6개월간 탐색 경험이 없는 3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서술형으로 질문한 결과, 이 중 18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무용기록물의 존재나 탐색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명(55.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탐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이 5명(27.8%), 기타 3명(16.7%)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관람을 선입견 없이 하기를 바라는 편이라 미리 검색하지 않는 편”과 같이 개인적 감상 태도와 관련된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무용기록물 탐색 경험의 부재와 탐색 과정의 어려움 모두에서 기록물의

존재와 위치에 대한 정보 부족, 기록물의 분산 및 홍보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3.4 활용 행태

검색한 무용기록물을 무용 활동을 위해 실제로 얼마나 자주 활용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자주 활용했다’(32.7%)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26.5%), ‘거의 항상 활용했다’(10.2%) 순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반면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5.1%에 그쳐 대부분의 응답자가 무용기록물을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무용기록물 활용 빈도(N=98)

구분	빈도	백분율(%)
거의 항상 활용했다	10	10.2
자주 활용했다	32	32.7
보통이다	26	26.5
가끔 활용했다	25	25.5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5	5.1
합계	98	100

활용 목적은 교육(60.2%), 창작·안무 참고(59.1%), 개인 학습(57.0%)이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표 17> 참조) 무용기록물이 단순한 보조자료를 넘어 실질적 창작, 교육, 학습 과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연구·논문 작성(12.9%)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 참여자 중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7> 무용기록물 활용 목적(복수 응답)(N=93)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수업·지도)	56	60.2
창작·안무 참고	55	59.1
개인 학습	53	57.0
연구·논문 작성	12	12.9
합계	1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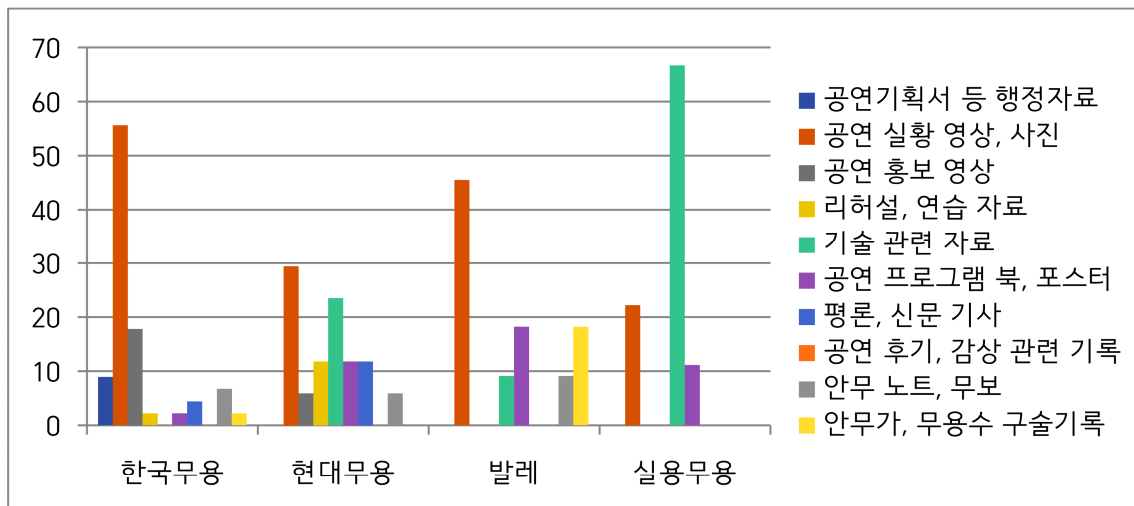
또한, 무용기록물이 무용 활동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12(SD=0.623)로 응답자들은 무용기록물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용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표 18>은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한 무용기록물 유형을 조사한 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표 14>의 ‘탐색한 무용기록물 유형’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양한 기록물이 활용되었으나 공연 실황 영상·사진(45.2%)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무대·의상·음향 등 기술 관련 자료(12.9%)가 뒤를 이었다. 공연 실황 영상·사진의 활용 비중이 높은 것은 시각적 정보가 공연 재현이나 교육적 활용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며, 무대 관련 기술 자료 역시 공연의 완성도와 재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공연 프로그램 북·포스터’는 탐색 비율에 비해 실제 활용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자료가 공연의 기본 정보

를 확인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안무 분석이나 무대 구성 등 공연의 본질적인 요소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8> 가장 많이 활용한 무용기록물 유형(N=93)

구분	빈도	백분율(%)
공연 실황 영상·사진	42	45.2
무대·의상·음향 등 기술 관련 자료	12	12.9
공연 홍보 영상	9	9.7
공연 프로그램 북·포스터	8	8.6
안무 노트·무보(舞譜)	6	6.5
안무가·무용수 구술기록	5	5.4
공연기획서 등 행정자료	4	4.3
평론·신문 기사	4	4.3
리허설·연습 자료	3	3.2
공연 후기·감상 관련 기록	0	0.0
합계	93	100.0

전공분야별로 가장 많이 활용한 무용기록물의 유형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한국무용의 경우, 공연 실황 영상·사진이 약 60%를 차지하여 활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발레 전공은 공연 실황 영상·사진과 함께 무대·의상·음향 등 기술 관련 자료를 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무용 전공은 공연 실황 영상·사진 외에도 리허설·연습 자료 등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폭넓게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용무용 전공은 무대·의상·음향 등 기술 관련 자료의 활용 비율이 가장 높아 다른 전공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1> 전공분야별 가장 많이 활용한 무용기록물 유형

이러한 결과는 전공별 특성과 활용 목적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무용의 경우, 전통 작품의 재현과 동작 학습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공연 실황 영상·사진을 중심으로 한 시각적 참고자료가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발레는 무대 조명·의상·음향 등 무대 연출 요소가 작품 완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 관련 자료의 활용 또한 높게 나타났다. 현대무용 전공은 창작적 해석과 즉흥성을 중시하는 특성상,

공연 실황 외에도 리허설·연습자료나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실용무용은 무대 공연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무대 조명·의상·음향 등 실무적 측면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표 19>는 무용기록물의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이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저작권·이용 제한(53.1%)으로 인한 제약을 경험하였으며, 자료 정보의 부족(33.7%), 자료 품질 문제(22.4%), 이용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19.4%) 또한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표 19> 활용 어려움의 원인(복수 응답)(N=98)

구분	빈도	백분율(%)
저작권이나 이용 제한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52	53.1
자료에 필요한 세부 정보가 불충분해서	33	33.7
자료의 품질이 낮거나 파일 형식이 맞지 않아서	22	22.4
이용 방법(활용 절차,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19	19.4
접근 기기·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서 (특정 전용 뷰어, 파일 호환성 문제)	18	18.4
기타(직접 입력)	3	3.1
합계	147	-

3.5 개선 방안

무용기록물의 인식 개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디지털화 및 보급’(55.1%)과 ‘무용기록물 콘텐츠 제작·홍보 강화’(52.0%)를 선택하여, 무용기록물의 양적 확대와 인지도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0> 참조). 그다음으로 ‘무용 아카이브 플랫폼 통합 검색 서비스 강화’(29.6%)와 ‘관련 사이트 내 기록물 검색·열람 방법 안내 강화’(27.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검색 편의성과 정보 탐색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해상도 제공 및 자료 설명 보완 등 품질 개선’(23.5%), ‘무용기록물 관련 교육·워크숍 확대’(20.4%)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여,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무용기록물의 품질 향상과 이용자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다.

<표 20> 기록물 인식 개선 및 활용 촉진 방안(복수 응답)(N=98)

구분	빈도	백분율(%)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디지털화 및 보급	54	55.1
무용기록물 콘텐츠 제작·홍보 강화	51	52.0
무용 아카이브 플랫폼 통합 검색 서비스 강화	29	29.6
관련 사이트 내 기록물 검색·열람 방법 안내 강화	27	27.6
고해상도 제공 및 자료 설명 보완 등 품질 개선	23	23.5
무용기록물 관련 교육·워크숍 확대	20	20.4
합계	204	-

4. 면담 결과

4.1 무용기록물 탐색 목적 및 빈도

면담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네 명의 면담자 모두 창작이나 교육 등 실질적인 무용 활동 목적으로 기록물을 탐색하고 있었다.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 A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졸업작품 준비를 시작하면서 창작을 목적으로 음악, 동작, 의상 등을 연구하기 위해” 한 달에 2~3회 정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고 밝혔다. 현대무용가 B와 브레이킹 댄서 D 역시 개인 창작을 목적으로 거의 매일 관련 기록물을 찾아본다고 답해 기록물 탐색을 일상적인 행위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문화센터와 무용 학원 등에서 무용강사로 활동 중인 C는 “학생들에게 동작을 설명하거나 본격적으로 안무를 배우기 전 흥미를 유발시킬 때 기존 영상이나 공연 홍보 영상 등을 참고”하는 등 교육 목적으로 월 1회 정도 탐색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4.2 탐색 행태

무용기록물을 탐색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묻은 질문에 대해, 네 면담자 모두 유튜브를 탐색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이후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의 기록물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A는 국립국악원, 국가유산진흥원, 콩쿠르 기관의 공식 채널(예: 카시아 TV)을 중심으로 공연 실황 영상과 무대·의상 등 기술 자료를 탐색했다고 밝혔다. C는 성인 취미반 수강생들과 함께 ‘호두까기 인형’의 ‘꽃의 왈츠’ 장면을 발표회 작품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무 연출을 위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였다. 그는 마린스키 발레단, 로열발레단 등 유명 발레단들의 공연 실황 영상과 리허설·연습자료, 무대·의상 등 기술자료를 찾아보았으며, 다른 발레 학원의 성인반 발표회 영상에서도 연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D 역시 브레이킹 댄스 배틀 준비를 위해 유튜브에서 대회 공식 채널뿐만 아니라 개인 댄서들의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배틀 실황 영상과 연습 영상을 탐색하였다.

이에 비해 B는 기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보다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그는 무용 공연 재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과거 공연의 실황 영상을 유튜브에서 탐색했으나 관련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공식 아카이브가 부재한 공연의 경우, 개인 소장 자료 외에는 활용 가능한 자료가 거의 없으며, 결국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였다.

“안무가님이 보관하고 계셨던 자체 촬영본과 당시 출연했던 무용수 한 분이 개인적으로 찍어둔 연습 영상들, 보관되어 있던 당시 의상, 소품 사진 자료 등을 찾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용수들 간의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무용가 B)

또한, 면담자들은 찾은 영상에 대해 낮은 화질, 고정 시점 촬영 등 영상의 기술적 제약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영상이 무대 정면에서 찍은 관객 시점 영상이라 발 포지션이나 팔 각도 같은 디테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군무의 특성상 특정 부분을 보고 싶어 확대를 하면 화질이 저하되는 등 품질이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용강사 C)

“옛날 자료의 경우 영상 화질이 고르지 않아 동작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대학생 A)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는 사진 자료와 주변 지인의 개인 자료를 활용하였고, C 역시 과거 ‘꽃의 왈츠’ 공연에 참여했던 동료로부터 안무 노트와 개인 촬영 영상을 확보하여 보완하였다. D는 동일 공연이라도 관객 촬영 영상과 공식 영상을 병행하여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여러 시점에서 동작을 파악하였다.

요약하면, 네 사례 모두에서 유튜브가 무용기록물 탐색의 출발점으로 이용되었으나 원하는 기록물의 부재, 저화질, 고정 시점 촬영 등으로 인해 자료 활용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면담자들은 인적 네트워크와 개인 소장 자료에 의존하는 비공식적 보완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4.3 탐색 실패 경험

네 면담자는 원하는 무용기록물의 부재로 탐색에 결국 실패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였다.

“(해외에서 공연된 한국무용 공연을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는 편집본이라던가 똑같은 공연을 썸네일만 다르게 해서 올리는 영상들이 많아 정작 과제를 위해 활용할 만한 영상은 없었습니다.” (대학생 A)

“한국 1세대 브레이킹 댄서들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1세대 여성 브레이킹 댄서 선배들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킹 댄서 D)

무용기록물을 찾지 못해 창작의 방향 자체를 바꾸거나 교육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다. B는 한국무용인 처용무를 현대무용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을 구상하고, 처용무 공연 실황 영상을 찾아보았으나 유튜브에는 10-20분 정도의 일부 영상만 있어서 전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특히 비전공자로서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애초의 융합적 창작 기획을 포기하고 다른 작품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한국무용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개인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개인적으로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 2-3개월 정도 씨름하다가 결국 현대무용적 해석은 포기하고 순수 현대무용 주제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장르 간 벽이 생각보다 높고, 혹시 자료가 있어도 접근할 방법을 모르면 소용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대무용가 B)

C 또한 남성 무용수의 신체적 특성과 기술적 요소를 다룬 교육자료를 찾지 못해 기존 지식에 의존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남학생이 발레를 배우러 왔는데 제가 남자를 가르쳐본 경험이 없어서 교육자료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특히 남자 발레의 점프 기술이나 회전 같은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는데 남자 발레와 관련된 교육 자료는 거의 없어서 결국 못 찾고 제 나름대로 여자 발레 지식을 바탕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용강사 C)

이런 실패 사례들은 무용기록물의 부재와 접근성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원래 구상했던 작품의 창작을 포기하거나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무용기록물이 예술 창작과 교육의 기반이 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4.4 활용 행태

네 면담자의 무용기록물 활용 양상은 그 목적에 따라 창작을 위한 활용, 교육적 적용, 그리고 재현 중심의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A와 D는 탐색한 기록물을 창작의 소재이자 기술 학습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이를 자신만의 표현 방식에 맞게 재해석하고 변형함으로써 자기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음악적 영감을 얻거나 안무 동작을 변형하거나 의상, 소품 사용법을 비교해 가며 졸업 작품 동작과 구성에 응용하였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동작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접목했고, 좋은 주제나 음악이 있을 경우 영감을 받아 발전시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A)

“영상을 슬로우모션으로 돌려보며 분석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캡처해서 자세 분석도 하고 거울 앞에서 따라해 보면서 제 몸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브레이킹 댄서 D)

C는 탐색한 기록물을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수 학습 도구로 활용하였다

“수업 시간에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사진들을 비교하며 최대한 비슷한 의상을 대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작 안무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게 동선을 단순화하고, 공연 규모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무용강사 C)

B는 과거 공연의 재현을 목적으로 기록물을 활용한 사례로, 원작의 안무와 동선을 충실히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맞춰 공간 활용 방식 등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원작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 변용을 시도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면담 결과는 무용기록물이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개인의 창작적 해석이나 교육적 응용, 공연 재현의 과정에서 재구성되는 활동적인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5 개선 방안

네 면담자는 무용기록물의 탐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 검색 플랫폼의 구축, 기술적 제약의 개선 및 검색 기능 고도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원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통합적 접근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용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물을 한 곳에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무용가 B)

“다양한 유형의 무용기록물들이 디지털화되어 제공되고 함께 통합 플랫폼에서 검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용 자료가 폭넓게 제공된다면 무용 강사뿐만 아니라 무용을 전공하는 전공생들이 이러한 무용기록물을 활용하여 무용기록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용강사 C)

“한국 브레이킹의 역사나 주요 대회 영상, 댄서 인터뷰 같은 자료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면 검색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 댄서 D)

더불어, B는 이러한 통합 검색 플랫폼에서 무용 전공자 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포함할 것으로 제안하였고, D는 브레이킹 댄스가 스트리트 문화의 특성을 지니는 만큼 이용자가 직접 영상이나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기술적 개선과 검색 기능 고도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무용수의 입장에서는 동작이 선명하게 보이는 고화질 영상 제공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추후 같은 공연이라도 한 관점에서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측면(좌,우) 등 최소 3개 각도에서 찍는 촬영 기법이 무용계에 정착이 되고 이러한 실황 영상이 제공된다면 무용수들에게 본인 출연한 공연이 모니터링의 역할뿐만 아니라 추후 공연 재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무용가 B)

검색 기능과 관련하여, C는 교육 목적이나 학습 수준에 맞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초급/중급/고급’ 등의 필터 기능을 갖춘 검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D도 “과워무브, 풋워크, 프리즈 등 무브 유형별, 난이도별로 정리”된다면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저작권 문제는 교육 및 창작 현장에서 접근성과 활용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공연 영상들이 저작권 때문에 삭제되거나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 목적으로 쓰려고 해도 비용 부담이 생기고, 이를 수업에서 보여주는 게 가능한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저작권과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용강사 C)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든 무용도 저작권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 다양한 무용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A)

마지막으로 무용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면담자들은 무용 전공자들이 기록물 탐색 시 유튜브를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용 아카이브 플랫폼의 홍보 강화와 콘텐츠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의 면담 내용을 종합하면, 네 면담자의 탐색 및 활용 경험 사례는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경향과 일치한다. 즉, 직업적 역할에 따라 탐색과 활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유튜브 등 비공식 경로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고, 원하는 기록물의 부재, 저화질 및 고정 시점 촬영 영상, 저작권 제약 등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5. 시사점

본 연구는 무용 전공자를 대상으로 무용기록물에 대한 인식 수준과 탐색 및 활용 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무용 전공자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4명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과 면담 결과를 종합한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절반이 '무용기록물'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다고 답하여 전반적으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무용 경력, 전공, 직업에 따라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력 10년 이하의 집단과 대학(원)생, 실용무용 전공자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무용기록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창작, 교육, 연구 등 목적과 관계없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무용기록물의 개념이 교육과정이나 실무 현장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아 용어 자체에 대한 친숙도는 낮지만, 그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공별로는 한국무용과 발레 전공자가 높은 필요성 인식을 보인 반면, 실용무용 전공자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통 재현 중심의 교육과 창작 실습 중심의 교육 간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무용기록물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경험이나 관심을 넘어 전공 교육체계와 직업적 역할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탐색 행태 측면에서는 유튜브와 SNS가 주요 탐색 경로로 활용되었으며, 공식 아카이브나 공연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이 높은 범용적 플랫폼이 실제 현장에서 주요한 탐색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공식 아카이브나 공연단체 홈페이지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질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무용 전공자들은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보다 개인이 업로드한 비공식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공별로는 실용무용 전공자의 '탐색하지 않았다' 응답 비율이 높았던 반면, 한국무용과 발레 전공자는 정기적 탐색의 비율이 높아 전공 특성에 따른 기록물 탐색 빈도의 격차가 뚜렷했다. 직업별로는 무용교육자 집단은 정기적 탐색이 활발했으나 대학(원)생과 전문무용수 집단은 상대적으로 탐색 빈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기록물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며,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탐색 행위도 활발한 경향을 보여 두 요인 간의 상관성을 시사한다.

셋째,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디지털화 및 보급, 무용기록물의 콘텐츠 제작·홍보 강화를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탐색 과정에서 원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창작 방향이나 교육 계획을 변경해야 했던 면담 참여자들의 경험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탐색 과정에서 원하는 자료의 부재, 분산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넷째, 설문 응답자 다수가 탐색한 기록물이 실제 무용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들은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원인으로 저작권·이용 제한, 자료 품질 문제,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꼽혔다. 면담에서도 저화질 영상, 제한된 촬영 각도, 저작권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저작권 문제는 무용기록물의 활용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자가 교육 목적에서조차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의 복잡성이 이용자들의 접근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는 무용기록물의 인식 제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적, 기술적, 제도적 차원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 예술 분야 교육기관에서는 무용기록물의 개념과 활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용 전공자들이 기록물을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예술 창작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탐색·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아카이브 기관 역시 이용자 대상 워크숍, 활용 프로그램, 검색 및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여 무용 전공자들이 실제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연 영상, 사진, 안무 노트, 기술자료 등 다양한 무용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디지털화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설문조사와 면담 결과 모두에서 공연 실황 영상이 가장 중요한 활용 자료로 확인된 만큼, 주요 공연단체 및 예술기관이 보유한 영상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고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향후 공연을 다각도·고화질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용기록물의 분석 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기록 생산, 고품질 영상화, 디지털화 작업이 병행될 때 무용기록물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셋째, 생산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무용 전공자들이 단일한 접근 경로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전공별, 직업군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대무용 전공자에게는 공연 실황 영상 및 리허설 영상과 안무 노트 등 창작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강화하고, 교육 중심의 무용강사에게는 교수학습용 영상이나 수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통합 플랫폼은 단순한 자료 저장소를 넘어, 이용자들이 기록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참여형 커뮤니티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기록물의 재활용과 창작의 순환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자, 학생, 전문무용수 등 무용 전공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요 예술기관 및 공연단체가 협력하여 자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 저작권에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자 교육과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다층적인 접근은 향후 무용기록물의 생산과 보존, 그리고 활용이 순환적으로 연계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무용 전공자를 대상으로 무용기록물에 대한 인식 수준과 탐색 및 활용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주로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데 반해,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무용기록물의 탐색과 활용 현황을 접근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실제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무용기록물 교육, 서비스, 아카이브 플랫폼 설계에 이용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지역의 대학 및 기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문대상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무용 전공자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역적 편중은 연구 초기 단계에서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응답자의 전공과 직업 분포의 불균형 역시 연구자가 활용한 네트워크의 특성과 연결된 집단의 구성 비율이 반영될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공, 직업군 등을 다양화하여 보다 대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무용 전공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관리 체계 개선, 통합 플랫폼 설계, 서비스 홍보 전략 수립 등 무용기록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요소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제 이용자들이 현재 무용 아카이브를 통해 어떠한 기록물을 탐색·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제약을 경험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아카이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연 (2020). 공연예술아카이브 교육 콘텐츠 개발환경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7(2), 21-32.
<http://dx.doi.org/10.21539/ksds.2020.37.2.21>
- 김두리, 김수정 (2014). 대학기록관 이용자의 기록정보서비스 인식에 관한 연구: J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4), 29-47.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029>
- 박유진, 정영미 (2019).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D대학을 사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2), 193-21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2.193>
- 박주석 (2014). 자료구축의 중요성. 2014 하반기 아르떼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단체의 브랜딩과 포트폴리오 관리 연수 자료집.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5-35.
- 신상미 (2001). 무용기록과 분석체계 및 그 활용사례. 무용역사기록학, 1, 23-43.
- 양세라 (2012). 민간극단의 공연기록 관리 현황과 공연기록 관리 방향 모색: 목화와 오태석의 공연기록 관리 현황을 근거로. 드라마연구, 37, 57-83. <https://doi.org/10.15716/dr.2012..37.57>
- 오경환, 김건 (2023). 영미권 공연예술아카이브 비교·분석을 통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기록정보콘텐츠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4), 1-24.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4.001>
- 오정은 (2023). 무용 전거레코드 구축 방안 연구: 무용구술사 기록물 활용을 바탕으로. 무용역사기록학, 71, 55-85.
<https://doi.org/10.26861/sddh.2023.71.55>
- 유미희 (2008). 무용교수매체로서의 국내예술자료관의 현황과 활용가능성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15, 33-59.
- 이소연, 박주석 (2016). 재현공연을 위한 무용기록물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연구: <영성제>와 <사직대제>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42, 169-190. <https://doi.org/10.26861/sddh.2016.42.169>
- 이정은, 강주연, 김은실, 김용 (2017). 대학생의 기록관 인식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1, 133-173.
<https://doi.org/10.20923/kjas.2017.51.133>
- 이호신 (2013a). 공연예술기록의 초상권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333-355.
<https://doi.org/10.16981/kliss.44.1.201303.333>
- 이호신 (2013b). 공연예술기록의 저작권 문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249-26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1.249>
- 이호신 (2014).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존재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33, 11-33.
- 이호신 (2016). 공연예술기록의 정리와 기술에 관한 담론: 출처중심주의와 원질서 유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151-174.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1.151>
- 이호신 (2018). 공연예술의 영상, 기록을 넘어서. 국악원논문집, 37, 59-79.
<http://dx.doi.org/10.29028/JNGC.2018.37.059>
- 임장혁 (2008).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과 기록물의 활용: 무용분야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15, 121-142.
- 장연희, 윤은하 (2024).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좌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187-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187>
- 주선영 (2015). 무용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주선영 (2024). 공연예술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 아카이브 플랫폼 '별별스테이지'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73, 3-19. <https://doi.org/10.26861/sddh.2024.73.3>
- 최윤영 (2023). 공연예술 아카이빙의 사례와 의미.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허진 (2022).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보존관리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Yunyoung (2023). Examples of Archiving Performing Arts and Their Significanc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Heo, Jin (2022).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Plan of Performing Arts Archive: Focused on the National Theater Performing Arts Museum.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Korea.
- Im, Jang-hyuk (2008).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ording and its utilization: focusing on Korean traditional dances. *Asian Dance Journal*, 15, 121-142.
- Jang, Yeonhee & Youn, Eun-ha (2024).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ecords manag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i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4(1), 187-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187>
- Joo, Sunyung (2015). A Study on Dance Archive's Records Collecting Method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 Joo, Sunyung (2024).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digital curation platform for performing arts: focusing on the performing arts archive platform 'Byeolbyeol Stage'. *Asian Dance Journal*, 73, 3-19.
<https://doi.org/10.26861/sddh.2024.73.3>
- Kim, Doyeon (2020). The study on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al environment for educational contents in performing arts archive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37(2), 21-32.
<http://dx.doi.org/10.21539/ksds.2020.37.2.21>
- Kim, Du-ri & Kim, Soojung (2014). A study on users' perceptions of archival reference services in a university arch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29-47.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029>
- Lee, Hosin (2013a). A study on the issues on the right of portrait for performing arts archiv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333-355. <https://doi.org/10.16981/kliss.44.1.201303.333>
- Lee, Hosin (2013b). A study on the copyright issues about performing arts record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249-26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1.249>
- Lee, Hosin (2014). A study on th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rforming arts archives. *Asian Dance Journal*, 33, 11-33.
- Lee, Hosin (2016). A discourse on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performing arts record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rovenance and retention of the original orde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1), 151-174.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1.151>
- Lee, Hosin (2018). Performing arts videos: beyond the record. *Journal of National Gugak Center*, 37, 59-79.
<http://dx.doi.org/10.29028/JNGC.2018.37.059>
- Lee, Jung-eun, Gang, Juyeon, Kim, Eun-sil, & Kim, Yong (2017). A study on a method to use activation and awareness on archives of university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1, 133-173.
<https://doi.org/10.20923/kjas.2017.51.133>
- Lee, Soyun & Park, Juseok (2016). A study on values and utilization of dance archives for represented dance : focusing on Yeongseongje and Sajikdaeje. *Asian Dance Journal*, 42, 169-190. <https://doi.org/10.26861/sddh.2016.42.169>

- Oh, Jeong-eun (2023). Research on ways to establish dance authority records: based on the use of dance oral history records. *Asian Dance Journal*, 71, 55–85. <https://doi.org/10.26861/sddh.2023.71.55>
- Oh, Kyunghan & Kim, Geon (202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s in the Museum of Performing Arts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through comparisons and analyses of UK and US performing arts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3(4), 1–24.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4.001>
- Park, Juseok (2014). The Importance of Building Data Resources. In 2014 Second Half Arte Academy: Branding and Portfolio Management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Organizations. Seoul: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15–35.
- Park, Yu-jin & Jung, Young-mi (2019).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employees regarding email records management in universities: a case study of D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2), 193–21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2.193>
- Shin, Sang-mi (2001). The study of dance documentation, dance analysis system, and their application. *Asian Dance Journal*, 1, 23–43.
- Yang, Sei-ra (2012). Records management (process) develop plans: "Mokwha" and "Oh Tae Suk" performances based on the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The Journal of Drama*, 37, 57–83. <https://doi.org/10.15716/dr.2012..37.57>
- Yoo, Mi-hee (2008). Research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possibility of utilizing national arts data center as a medium for dance education. *Asian Dance Journal*, 15, 33–59.